

겨울철 한파 대비 따뜻한 승강장 만든다

전주시, 12월까지 51개 시내버스 승강장에 방한텐트 설치·624개 탄소 냉온열의자 점검 추진

전주시가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승강장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승강장에 대한 방한텐트 설치 및 편의시설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주시역 51개 시내버스 승강장에 방한텐트를 설치하고, 기설치된 624개 탄소 냉온열의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버스 탑승객이 많거나 환승 거점인 승강장 중 비가림시설이 취약한 곳에 대해 방한텐트를 설치함에 로써 찬 겨울바람을 막아주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전액 확보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승강장의 기능을 단순 대중교통 대기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휴게 공간이자 시민들의 따뜻한 쉼

터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승강장 내 설치된 탄소 냉온열의자의 작동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전주시역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탄소 냉온열의자의 경우 외부 기온이 18도 이하로 떨어질 때 자동으로 작동되며, 추운 겨울철 시민들이 따뜻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표면 온도를 38도로 유지한다.

시는 이번 방한텐트 설치와 일제 점

검을 시작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한파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한파 대비 방한텐트 설치 및 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덕진구청에서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이 헌혈증 130회분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혈액원에 기증했다.

생명나눔의 시작 '헌혈증' 기증

덕진구청 건축과 직원·사회복무요원, 130회분 혈액원에 전달

덕진구청(구청장 한병삼)에서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이 헌혈증 130회분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혈액원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들 헌혈 기증자들은 덕진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황욱, 사회복무요원 남건영, 김시몬, 서한솔 4명으로 지난 11월 4일 대한 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강진석)에 기증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증식을 실시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8개월 동안 광고물탑에 근무하면서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여 130회분의 증서를 모았으며, 소집해제를 앞두고 전담 전복혈액원에 기증했다.

이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 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지급되어 수혈받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덕진구청 직원인 황욱 주무관은 지난 5월 헌혈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왔으며, 2017년 전북도민일보 주최 친절봉사대상을 수상하는 등 평소에도 봉사활동이 몸에 밴 모범 공무원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헌혈 제안에 흔쾌히 동참해 주어 기특하고 소집해제 이후의 삶을 응원한다"며 "동절기는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시기로 행사 전 전혈을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고 싶다"고 전했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정원과 함께 사회복무요원들이 꾸준히 헌혈에 참여한 일이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많은 청년, 시민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2차 회의 가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7일 1388청소년지원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이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올해 현재 총 207명(기관 135, 개인 72)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규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식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추진 성과 및 보완사항 논의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기청소년을 발견 후 지원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원 과정과 방법을 청

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든든한 사회 울타리로서 역할을 구체화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올해 △사랑의빵 나누기(공전제과제빵마음직업전문학교) △무료스케일링(온가족치과의원) △무료 헤어컷트(나무헤어) △무료 문신제거(고은미래의원) △무료 안경지원(아이러브안경원, 다비치안경효자점) △자격과정지원(전북카이아카데미학원, 신삼전자자동차전문학원) △식품 및 생활용품지원(원광모자원 전주시거초푸드뱅크) △보육비, 의료비, 식품 및 생활용품지원(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일 1388청소년지원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역본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은실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보다 나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청소년안전망이 활성화되도록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건설기술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나서

전주시가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무원과 저경력 건설기술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시는 7일 신규 및 저경력 건설기술 공직자 120명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에 대한 실무 적용을 돕고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술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토목·건축·전기·기계·녹지·환경직 등 신규 및 저경력 건설기술 공무원의 공직 적응력 향상 및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설기술 30년 경력의 선배 공무원이 강사로 초청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 내 협업 능

력 강화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교육은 기술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설계서의 이해 및 설계변경'과 '건설 현장 품질·안전·시공 개선 사례'로 배우는 현장관리'를 주제로 진행돼 현장 감독 공무원 책무의 중요성과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전주시설공단, 하반기 정규직 27명 신규 채용 접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신입사원 27명을 공개 채용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전형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임용 예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제3회 경력경쟁 및 공개경쟁 직원 채용계획을 전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7일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공단 채용 사이트(<https://jss.plusrecruit.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일반직이 △행정 1명 △행정(기록물) 1명, 기술직이

△시설(산업안전) 1명 △기계(기계) 1명, 운영직이 △운영원(사무안내) 3명 △체육지도자(수영) 1명 △안전관리자(수영 2명, 안벽 1명, 인라인) 4명 △운영원(교통약자택시 6명, 마을버스 8명, 교통약자버스 1명) 15명이다.

이 중 행정, 시설(산업안전), 기계(기계), 운영원(사무안내)은 공고일 전날 기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 채용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직종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지역 인재로 채용한다. 공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이명희 돼지잔치 대표, 성금 200만원 기탁

취약계층 이웃나눔 봉사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자동 김장나눔 행사'를 맞아, 효자동에서 음식점(돼지잔치)을 운영하는 이명희 대표가 이웃성금 200만원을 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기탁함이 알려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명희 대표는 7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추운 겨울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쾌척했다.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이명희 대표는 2016년부터 '돼지잔치'라는 상호로 효자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 나갔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중식봉사, 대한적십자사 봉사 등 여러

선행을 펼치고 있다.

이명희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소외 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많은 봉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 전주매일 창간 www.jbcd.co.kr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